대학원생세미나 13.10. 29

리딩:

김석, "에크리: 라캉으로 이끄는 마법의 문자들"(살림, 2007) (발제: 옥창준)

자크-알렝 밀레 편, "자크 라깡 세미나 11권: 정신분석의 네 가지 근본개념" (새물결, 2008)(발제: 용채영)

<발제> -옥창준

1. 상징계, 주체.

시니피앙의 논리. 기표라고 표현. 시니피앙이 있으면 시니피에가 있음. 언어학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라깡이 받음. 기존의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식으로 수행했다면, 라깡은 이를 언어학의 논리를 가져와서 과학화하려고 시도. 흔히는 기표는 하나의 이름이고 실제 의미하는 즉 시니피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라깡은 시니피에에 대한 시니피앙이 중요하다고 강조. 이를 연산식을 도용해서 보여주고 있음. 나오는 대문자 S가 시니피앙, s는 시니피에. 왜 이런 식의 시니피앙의 우월성을 강조했는가? 이는 상징계가 중요하기 때문.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상징계라고 이해. 이미 세계가 있고 주체는 이후에 들어옴. 상징계라는 의미의 세계가 있는데, 주체는 여기에 포섭된 것임을 시니피앙과 시니피에의 관계로 설명. 언어이자 상징의 세계이므로 그 자체로서 의미 있는 것이 아님. 기표가 그러하듯이 기표들 간의 관계, 이를 통해 의미를 부여받음. 시니피앙은 완전히 변별적인 체계 속에서 가치를 부여받는다.

-상징계 개념 어려움. 간단히 설명, 언어의 질서다. 시니피앙의 세계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와 대별되는 ‘상상계’ ‘실재계’ ‘상징계’로 평가. I/R/S 도식으로 설명. 상징계가 어느 순간 깨지는 순간이 있음. 실재계가 상상계에 들어감. 주체가 생각하는 무대와 다름.

-도둑맞은 편지. Lettre. 이야기의 중심으로 등장하는데 이 레트르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름. 편지는 도둑맞고, 감추어짐. 편지의 내용은 모르나 편지가 주인공임. 결국 상징계도 언어로 구조화되어 있다고 하지만 상징계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 의미가 생김. 고정된 의미가 없다.

2.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프로이트와 비슷할 수도 있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해하는데는 상상계와 상징계에 대한 이해만 있어도 됨. 상상계는 거울단계를 같이 봐야 함. 동물들은 ‘나’라고 생각 못하고 흥미 잘 안 가짐. 흔히 아이들이 맨 처음 거울을 보게 되면 이를 통해 정말 신기하다고 느끼고,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존재임.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는 것이 설명. 자아가 자신을 통일체라고 인식 못하고 있었는데, 거울을 보고 통합된 실체를 보고 환호, 희열하면서 자아의 존재 안도 봄. 거울 속의 나이므로 주체가 사실 자신을 보장받는 것은 거울 속의 나이므로 통합되지 않음. 안정적인 자아의 모습을 거울을 통해 발견하기도 하지만 자아의 확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자아의 외부에 있음. 끊임없이 부유하게 됨.

거울단계에 있었던 자아를 상상계에 있었던 자아라고 볼 수 있음. 상상계에 있던 자아가 상징계로 편입되는 과정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해소라고 봄. ‘아버지의 이름으로’라는 말장난. 놈드 페르, 아버지가 뭘 금지한다 의미는 농드 페르. 발음이 유사. 거울 단계에 있었던 아이가 상징계의 세계로 편입되려면 아버지의 금지 자체를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름

흔히 국제질서, 변경하고자 하는 국가가 등장. 혁명국가 등 질서에 만족하지 못하는 국가가 등장하면 바꿔보려고 함. 하지만 구조, 체계, 질서가 있듯 그런 금지 당함. 자기에게 내재화되면서 국제질서에게 이해하는 frame인데 국가가 나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겪는 과정으로 본다면 재미있는 설명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상상계에서 상징계로 감. 거울 단계의 유아기가 아버지의 금지, 근친결혼의 금지 등을 개별자아가 받아들이면서 사회적인 자아로 가는 것을 라깡은 이런 표현으로 정리.

3. 대타자

프로이트의 경우엔 무의식을 의식화되지 않은, 정신분석을 통해 봄. 라깡은 ‘대타자’를 등장시켜서 설명. 무의식, 욕망 역시 내가 원해서 원한다기 보단 남의 욕망을 자신의 욕망처럼 생각. ‘대타자’의 욕망을 자기 욕망처럼 말하게 된다고 서술함. 그런 의미에서 욕망, 무의식 역시도 자신이 의식이 규명되지 못한 부분의 무의식이 있다기 보단 무의식도 이미 주체가 없음. 대타자의 ‘담론’으로서만 구성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주체가 라깡적 의미라는 것, 이미 욕망이 대타자의 욕망임. 인정의 욕망 등 욕망 투쟁이 끊임없이 벌어짐. 진정한 자신의 욕망이 아니므로 벗어나 수 없다고 함. 이것 역시도 흔히 말하는 흔히 알 수 있는 것, 국가가 욕망하는 것, 타자가 뭘 할 때 질투를 할 수도 있고. 자기의 욕망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님. 질투 등. 국제정치에서도 이런 식의 서술 도입할 수도 있겠다. Post colonialism, 일본의 개항과정에서 문명과정, 대타자-소타자의 도식을 활용. 완전히 라깡 도식을 상용하지는 않음. 일본에게 대타자는 서구 열망, 서구 열망의 것을 받아들여서 있음. 소타자로서 중국, 지나, 조선. 일본이라는 존재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소타자 사이에서 있었으므로 성공할 수 있었음. 이게 자신의 욕망이 있었다기 보다 서구의 것을 그대로 받아서 실천한 것이어서 자아분열할 수 밖에 없다라는 문화비평연구도 있었음. 이 틀을 생각해본다면 국제정치학에서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국가 차원에서 욕망이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지는 나중에 토론해볼 필요도 있을 듯. 국제질서도 개인의 사회화, 주체들이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해봄. 정신분석학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것 이야기들이 있을 듯.

<토론>

옥창준: 하나하나 보면 개념들이 다 이해가 되지만 전반적인 체계 자체, 뚜렷하게 이해되지 않음. 하나하나 재미있게 개념들을 생각. 거울단계, 충동 개념. 북한, 충동도 있고, 죽음충동도 있고. 절대적인 개념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개념? 국제정치적인 개념, 하나하나 보면서. 잘 활용하면 되겠다.

이재현: 북한 핵, 편지에 글. 그 편지를 핵으로 대입. 핵은 시니피에임. 핵의 대타자가 형성 국가들 사이에 들어와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 수도 있는데. 말한 것처럼 각각의 예를 보는 것, 오이디푸스, 일본의 예. 각각의 논점을 국제정치학에서 메타포식으로 이해하는 데는 도움. 라깡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움? 단편적이다? 에크리 174페이지의 도입.

송지예: 나와 타자가 분리되지 않는 하나란 인식. 균열관계에 있다라는 것. 강박증을 만드는 원인 나와 타인, 균열이 있지 않다는 것이 상호간의 이해를 저해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 연인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내가 상대방 안에서 보이는 나와 그 사람의 존재임. 나의 인식은 그렇게 분열되어 있는데 이를 하나라고 보는 것. 나의 이해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실재계, 상징계-상상계를 연결할 때 상징계가 중요하다.

-기표의 중요성, 국제정치에서 정말 같음. 기표가 다른데 맥락이 다르면? 어떤 주체가 이를 어떤 상상을 갖고 같은 상징을 써도 그것을 암. 그것에 대한 미묘한 차이, 상징계에선 같은 언어를 씀. 실재계와 상징계의 연결고리를 다르게 보는 것을 라깡의 논의에서 어떻게 가져올 수 있나? 상징계와의 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최인호: 사회 속에서 완전히 고정된 기표가 있다는 것?

송지예: 기표의 내용을 담는 것? 주체와 기표를 어떻게 연관시켜서 보면, 나라는 주체를 봄. 나라는 주체가 대자적으로는 존재하지만 그 자체로는 내용이 없다고 씀. 그런 측면에서 언어의 기표만 있고.

최인호: 빈집의 기표가 있지만, 고정된 것이 있음. 막상 여기의 의미를 만들 수는 없음.

이재현: 선군사상이라는 시니피앙 자체가 대타자라는 언어 세계 속 사이에서 튕겨나감. 선군 사상이 이렇게도 해석, 다르게도 해석. 그게 해석된다. 여러 해석이 되는 대상이 아니다.

최인호: 불편한 책이다. 무의식도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언어적으로 다 규정되어 있고, 효과가 나타남. 여기에 잡히지 않는 어떤 욕망, 본원적인 욕망을 담은 실재계가 있고, 이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진리개념임. 오히려 죽음 충동을 통과해야 하고.

옥창준: 국가차원에서 소외를 당하는 것과도 다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받아들이고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식까지, 아이 단계를 넘어 어른단계.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 잘 이루어진 것인가? 한미동맹. 단순히 미국과 절연하자, 분리과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음. 유의미한 아이디어. 분리가 자기의 욕망을 진짜 찾는 것, 지식질서나 문화의 영역에서 쉽게 다름. 미국과 다른 한국의 욕망이 무엇이냐?

최인호: 완전히 다름. 라깡 이야기는 남의 욕망에서 벗어나서 내 욕망을 찾자는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은 듯.

도종윤: 결국 주체에 대한 문제. 정신분석은 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음. 환자,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데 결국 무의식을 통해 들여다보자는 것이 확실하다고 믿음. 왜 그게 확실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은지 이야기하기 위해서 전제조건, 논리를 이야기한 듯. 두 번째 쪽, 라깡에서의 무의식. 간극, 또는 균열로서의 무의식. 언어와 같이 구조화된 무의식. 타자의 담론으로서의 무의식. 세 가지 길임. 언어 쪽에 관심. 환유, 은유 등 이야기를 해서 함. 환유, 은유. 시니피에를 빼고 시니피앙을 이야기함. 대유법은 시니피에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의 접근법이 맞나? 결국 의미화되는 것에 대한 전제를 깔고 있어서 어려움. 더 들여다봐야 함.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더 들여다봐야겠다. 궁극적으로 텍스트(Text), 주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안 됨. 주체의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됨. 이 사람의 주체의 이야기가 와 닿음. 주체 파악의 방식, p. 174의 그림. 결국 소타자와 자아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음, 대타자라는 문제에서 걸림. 한번도 생각해보지 못함, 프로이트는 결국 이렇게 생각 안 함. 라깡은 이런 측면에서 주체, 자아를 파악하는 것을 이야기함. 프로이트는 이렇게 접근하지는 않음. 대타자는 장소, 나를 알기 위해서 거울 이야기. 누군가를 통해 나를 본다는 것, 엄친아, 비교. 다 소타자라는 대상으로 파악되어서 수행. 대타자는 ‘장소’라고 표현. 대타자는 결국 대면할 수 있는 또 다른 주체, 객체가 아님. 중요한 매개가 ‘언어’임. 대타자가 있는 곳이 언어임. 그 언어가 은유인지, 환유인지 여러 알레고리가 있을 듯, 이게 무의식에 전이되어서 옴. 대타자에게는 가지 않고 오기만 함. 이게 왜 오기만 하는지는 모름. 대타자의 부분이 직관적으로 느끼는 것과는 다르다. 결국 이야기를 바꾸자면 국제정치에서의 이야기? 비유. 국제정치에서의 ‘주체’는 뭔가? 적어도 단위 수준이 뭔지 이야기되어야 함. 무의식이든, 어떤 것, 대타자 든. 구조화된 북한이든 등이 결정. 국가 관념을 딱 주체라고 하면 라깡 식의 무의식의 개념이 적용 되냐? 결국 정치인, community 등이 collective identity를 가진 것이 주체라고 보면 이를 무의식으로 접근 가능한가?.

주체에 대한 이야기, 후설이 이야기하는 주체 개념화하고는 완전 대비됨. 데카르트=후설. 명증화된 자기주체를 상정하고 이야기함. 이 사람은 전혀 아님. 후설 식의 것은 반대. 이 사람의 논리로는 완전 안 됨. 이 이야기를 같이 수렴해야 함. 후설 개념의 주체와 라깡 개념의 주체와 비교 필요할 듯. 주체문제를 더 들여다 봐야 할 듯.

작가는 없고 기호만 남음. 뒷부분과 연결. 권력개념은 완전히 빠진 뒤, 무의식에 기반한 주체의 ‘생성’ 주체의 움직임에 대한 분석개념은 여러 함의. 한번에 끝나는 것은 아닌 듯.

전재성: 라깡은 어떤 인식체계를 갖췄나? 여러 임상학의 경험을 통한 서술인데 우리는 쓰여진 책만 봄. 국제정치에서 라깡을 읽는 데의 함의? 인간을 바라보는, 환자를 본 뒤의 경험을 이론체계로 쓴 것임.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해가 어려울 것. 상징계에서 대타자를 꼭 안고 사는 사람들임. 불쑥 실재계의 충동이 있어도, 실재계가 본 나인 줄 알고 균열. 실제로 내 무의식이 구조화되었는지 잘 느끼지 못함.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지 못하면 내성화하고 살아야 함. 정신분석의 책을 볼 때는 자기정신에 대한 평소의 분석수준만 이해 가능. 많이 보면 이렇게도 설명, 아니면 fact에 대한 감이 없음. 분석글을 있어도 맞는지, 틀리는지 알기 어려움. 자기 자신의 것, 타인의 무의식, 주체 경험 불가. 자기의 무의식의 낯섬. 프로이드, 융, 라깡. 자기 무의식에 대한 문제점을 느낀 것임. 그런 것을 평소 느끼는 연습 필요. 국제정치 가져오기 방법 하나는 analogy로 가져옴. 국가=인간을 동일시 하고, 인간의 mechanism을 가진다면 라깡의 체계를 level만 올려서 가져옴. 이는 analogy로 그침. 복잡계적인 analogy도 그러함. 체계를 빌려와서 해도 맞다는 것. 체계를 가져옴. 무의식-인간-사회-level 별의 논리적 연관성 속에서 이를 볼 것인가. Analogy로 볼려면 읽은 사람들은 그럴 듯 하다, 재미있고, 이게 그거였구나 동조 못함. 실제 국가를 이루는 사람들의 무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함. 이는 복수의, 사회적 무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임. 라깡 별로 도움 안 됨. 한국인이 느끼는 대타자는 무엇이고, 욕구 연결하기 어려움. 국제정치학에서 substance와 상관 없이 방법론으로 도움 된 것은 하나는 인식론. 라깡이 여러 물리학적 과학과 정신과학의 추측과학 분리. 물리학적 수학체계로 인간정신 알 수 없음. 다른 형태의 과학이 필요하다. 그게 실증주의, 기존의 근대과학과는 다름. 맞다는 확신을 주기 쉽지 않음. 객관적 진실성 밝히기 어려움. 순환논리적. 라깡이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하는 사람. 무의식에서의 최면치료, 여전히 진리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음. 융 심리학 등. 가장 도움을 준 것은 ‘존재론’. 주체의 존재론적인 위상을 완전히 흔들어놓음. 주체는 구조의 효과임. 레비스트로스 등. 그런 효과가 무의식의 기표를 통해 각인된 형태로 나온다고 해서 새로움 구조주의 전체의 논의와도 일관된. 주체가 완전히 무시되진 않음, 주체 완전성 상정 안 함. 여전히 구조의 효과로 주체. 주체의 실체성 찾기 어려움. 자아와 무의식의 합의인데, 자아는 완전 잘못된 것이고, 상징계 속의 주체 역시 주체의 실체성을 찾기 어려움. 데카르트, “나는 생각하면 존재 할 수 없다” 주체의 사고, 일관된 사고, 기표로서 일관된 사고하는 언어와 전언어적인 인간의 존재 사이에는 심연이 있다. 존재론에 대한 성찰. 소쉬르+프로이드+구조주의. 완전한 설명틀의 논리체계 가지려고 하는데 그 자체가 기표성을 가짐, 차별성을 가진 기표성. 자기 스스로도 설명해도 기표적인 논리성 가짐. 스스로 모순. 어떻게 극복하는가? 에크리 뒤에, 세미나. 에크리는 안 읽히려고 쓰는 것이라는 둥. 선언어적, 화두적인 이야기 함.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

실재계 가장 재밌었음. 기표가 되기 이전의 Ding, 대상, 물자체가 욕구의 대상으로서의 대상 a, 언어 이전의 단계 어떻게 처리하냐? 완전한 괴리가 있음. 종교적으로는, 세미나에서도 결국 그 도달이 종교와 예술이라고 봄. 그렇게 성공적이라고 뵌 않음. 심리학적으로는 괴리라고 봄. 라깡적인 용어가 아니면 자아-실체 없음. 자아, 육체. 결국 실체 없다고 하지만 결국 실체 없음. 실체 없다고 욕망한다고 하는데, 욕망 주인의 진정한 실체 이야기 함. 불교와 라깡이 상통하는 측면은 그럼 그 실재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대타자를 넘어서 인간이 욕구한다는 것은 인정, 그런 길이 실제 있을 수 있는가? 라깡은 자기 존재나 수준이 이를 인정하진 않음. 합리적으로 불합리함을 설명했을 뿐, 이를 넘어서는 실재계의 도달방법에 대한 기법을 쓰지는 않음. 그런 점에서는 상상계, 주체의 매커니즘을 잘 밝혀주긴 했지만 불행히 삶을 마쳤을 것 같다. 세미나, 임상, 리딩에 기초. 현란한 수준의 구어체적인 세미나. 다 이해했다고 보기 어려움. 본격적으로 라깡 한다면... 개설서와 원서의 격이 차이가 있는 저자임.

도종윤: 주관주의적 주체와 구조주의적 주체 사이의 다리를 놓을 수 있는가?

전재성: 국제정치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 상징계가 가장 좋음. 담론체계에 완전 짜여진 속에 국가가 투영. Securitization, 담론계. 언어와 관련. 말로 표현된 구어, 술어적 언어가 아니라 상징체계. 야콥슨, 코젝렉 등의 기호학자들 이야기 많이 이야기함. 구조주의 이야기. 언어학. 구조주의가 shallow하게 이야기되는 구조주의적 기호학 논의가 있음.